

ACTS 신학공관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2015. 4. 15.

‘ACTS 신학공관(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神學共觀)’은 1998년부터 본교에서 추진해 온 공동연구작업으로서 ACTS의 신학적 입장과 선교적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천하려는 신학운동이다. ACTS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함’(=함께 봄)으로써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하는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기독교의 중심진리’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를 강조하고 전파하려는 운동이다. ‘기독교의 중심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선포하였고, 교부들과 교회의 교사들이 전승하였으며, 모든 역사적 신앙고백들 가운데 명시되어 온 핵심진리이다. 그것은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거룩함을 얻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요약된다. 이 중심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로서(눅 24:25-27, 44-48; 요 5:39; 20:31; 딤후 3:15-17) 성경의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궁극적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ACTS는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점과 기초가 되는 이 중심진리의 우선적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2. 바른 신학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른 신학을 세우는 운동이다. 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주의 신학조차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사조 이래 합리주의 사상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를 경험과 이성의 잣대로 해석하고, 기독교를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의 개념들로 체계화하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보다 지엽적인 주제들만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 보수주의 진영의 일부 신학도 주요 교리들을 수호하고 변증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비평학의 해석방법론을 비롯하여 믿음의 전제와 상충되는 인본주의적·경험론적 방법론들을 차용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과 무관한 세부사항들을 놓고 무익한 공론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ACTS 신학공관’ 운동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전반적으로 중요시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현대 신학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운동이다.

3. 참 신앙인 양육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을 키워내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절실히 요구된다. 다원주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에 들어와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신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시되고 있다. 전 세계 교회는 과학주의적 세계관과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서 전통적 신앙을 유지하

기 힘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 교리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부패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큼 세속화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교리적 승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명목상의 고백만 있을 뿐 실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전인적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CTS는 이 중심진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을 올바르게 제시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병행하여 신학과 신앙,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함이 통합된 성령 충만한 참 신앙인을 키워내려고 한다.

4. 교회연합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고백하는 모든 개신교파들 사이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운동이다. 성경은 교회가 동일한 신앙고백 위에서 일치와 연합을 힘써 이루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범세계적 교회연합운동은 신앙의 동질성보다는 기구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또한 신앙의 핵심이 아닌 부차적 교리의 입장에서 분리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은 중심진리에 대한 동일한 신앙고백 위에 세워져 왔고, 그들의 교리적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의 극심한 분열의 역사와 상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개교회-교단 중심의 경쟁적 확장이나 선교의 방식은 지양하고, 다른 교파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ACTS는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만연한 심각한 교파간 대립과 분열상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세계에 중심진리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5. 교회회복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개신교 교회의 교사들이 각 시대마다 올바르게 강조한 신학과 실천의 내용을 ‘기독교 중심진리’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수립하려는 운동이다. ACTS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공관하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함으로써 교회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것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신본주의-복음주의’ 신학교인 ACTS가 오늘날 혼탁한 현대 신학의 시류와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려는 신학운동이다.